

# 포항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그린바이오 확장 '박차'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신청 등 산·학·연·관 유기적 협업 도모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중점  
반려동물 의약품 육성 등 추진

포항시가 바이오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수년간 국내 유일의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국내 최초로 도입된 극저온전자현미경,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 바이오 원천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센터(PBC) 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우수한 연구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와 함께 포항시에는 유망 바이오 기업의 벤처창업 플랫폼인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 글로벌 신약개발의 중심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국내 최초 식물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R&D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IRC)' 개소식 기념촬영 사진.

포항시는 이러한 강점들을 내세워 지난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며 명실상부한 바이오 미래산업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핵심 목표는 우수한 R&D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토대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핵심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주 전략으로 삼고 있다.

포항시의 그린바이오 사업의 확장 역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높은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으로 농식품 및 관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으로 포항은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

에 있다.

지난해 2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6대 유망분야 산업화 거점 중 동물용의약품 거점으로 지정된 바 있는 포항시는 동물용의약품 거점지원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총사업비 350억 원) 역시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다양한 추진 동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것"이라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 국내외 바이오 주권을 확실히 선점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담양군

#### 담양쌀, 올해도 佛 수출길 올라

전남 담양에서 생산된 '풍요로운 담양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랑스 수출길에 오르며 딸기에 이은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담양군은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프랑스 현지 아시아인 식료품 유통전문업체인 'ACE FOOD SAS'와 계약해 수출 전용 브랜드인 풍요로운 담양쌀 12톤을 지난 18일 선적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이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요즘, 담양군은 지난해 미국,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에 담양쌀 129톤을 수출한 경험을 토대로 유럽 전역으로 담양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

#### 남부 광역권 관광 활성화 사업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부산 거점 남부 광역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SIC (Seat In Coach) Tour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SIC Tour 사업은 부산에 체류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형 버스나 밴을 편하게 이용해 인근 지역(울산, 경남, 경북 등)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SIC 투어 상품 5여개를 선정해 상품 홍보·판매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울릉군

#### 울릉도·독도 해설사 간담회

울릉군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2024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은 2012년 12월 27일 국내 1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뒤 총 32명의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했고, 지난 6년간('18~'23) 무려 173386명의 탐방객이 해설사의 안내를 받았다.

현재는 23명의 해설사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 8월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실시한 인지도 부분 투표에서 51.6%의 득표로 이 부분 2위를 기록하는 성과까지 낳았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

### 밀양시

#### '밀양 독 페스티벌' 23일 개최

밀양시는 오는 23일 밀양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원조 개통령 이용종 KCMC 문화원 원장을 초대해 '밀양 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용종 원장은 TV 동물농장, 슬기로운 반려생활, 아이러브펫 환골탈태, 체인지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시는 오는 23일 화창한 봄날을 맞아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하고자 이용종 원장을 초청한 밀양 독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완도군,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구축

해조류 기반 지역 전략산업 성과  
생산시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조류가 대량 생산되는 서남해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조류 기반 바이오 소재·제품 개발 및 대량 생산 등 해조류 특화 거점지역'을 완도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완도군은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생태계 구조를 완성하고자 전남도와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지난해 7월 준공·개소했다.

전남 도내에서 유일한 「해조류 소재 화장품 생산지원 시설」도 지난해 12월 구축했고, 해조류의 계절적 생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 원)를 확보했다.

군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업비를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해조류에서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 기능 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 소재를 공급하는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은 설계를 완료해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신안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순항'

덴마크 CIP 기업서 100억 투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해상 일원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덴마크 CIP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에서 100억원을 투자하여 특수조사 선박을 이용, 해양 지반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공사 시작까지 받아야 할 인허가 절차만 10개 부처, 29개에 이르는데, 해당 개발사는 지난해 3월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발전단지 설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반조사 착수 전 어업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등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 C) 및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완공되면 약 11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약 3만4600개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하동-보성군, 차 산업 발전 상생협력

자매결연 공동사업 교류회의 성료

대한민국 차(茶) 산업의 양대 산맥 하동군과 보성군이 차 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공동사업 교류회의'를 지난 15일 하동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의는 보성군수와 보성군 녹차 산업, 문화·예술, 체육 분야 관계자 25여 명이 하동을 찾은 가운데 각 지역의 단체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념품 및 특산물 증정, 공동 사업 협의 및 의견 교환, 기념 촬영, 악양면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차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 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협력, 방송 홍보 영상 공동 제작 등을 통한 새로



하동군과 보성군이 차 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공동사업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하동군

운 도약을 약속했다. 더불어 하동군립예술단과 보성군립국악단의 교류를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체육 분야에서도 양군이 개최하는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 부산 '신평·장림일반산단' 경쟁력 강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부산시는 신평·장림일반산단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정부가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지역이다. 산업 입지 기능을 향상해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정되고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신평·장림일반산단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

고 본 지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신평·장림일반산단이 선정된 뒤 사하구,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하고 3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산업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조 혁신, 스마트 제조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저탄소 그린, 산단 에너지 자립으로 친환경산단 조성 등을 위한 19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